



복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실로스 Blessed Francis Seelos (1819-1867)

(축일 10월 4일)

Fussen(독일, Bavaria)에서 Frances Schwarzenbach Seelos와 Mang Seelos의 1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날 그의 아버지가 직물상인으로 졸군 살고 있었고, 1830년부터는 교회지기로서 지냈던 Saint Mang의 본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실로스는 1831년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제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Ausburg에 있는 성 스테파노 재단 설립의 중등학교에 입학했다. 그후 1839년에 졸업장을 받고 뮌헨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1842년 9월 19일 신학교에 입학,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신학생 시절에 실로스는 구속주회 선교사들과 친분을 쌓아 갔고, 그러는 사이에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구속주회의 영성과 사도적 활동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이주민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속주회 선교사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실로스는 구속주회 선교사들의 타오르는 사도적 열정에 감명되었고, 미국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사목을 하던 구속주회 선교사들에게서 독일계 이주민들을 위한 영적인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시온"이라는 가톨릭 신문 기사에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실로스는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허락을 구속주회에 요청하기로 하고 입회를 결정한다.

실로스는 1842년 11월 22일 입회허락을 받은 후, 이듬해 3월 17일에 프랑스의 Le Harve항구를 떠나, 1843년 4월 20일 뉴욕에 도착했다. 그리고 신학 공부와 수련을 마친 후, 1844년 12월 22일 볼티모어에 있는 성 야고보 구속주회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서품 후 몇 달이 채 안되어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성 필로메나 성당에 부임하여 그곳에서 9년을 지낸다. 첫 6년은 그곳 구속주회 장상인 성 존 노이먼(St. John Neumann)과 함께 그의 보좌 역할을 하며 보냈고, 남은 3년은 같은 공동체의 장상으로 지낸다. 이 시기에 그는 구속주회 공동체의 수련장으로 지목되었다. 성 노이먼과 함께 사목하던 때 강론에서 노이먼과의 관계에 대해 "그는(노이먼 성인을 지칭함) 나를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했고, 영적 지도자와 고백 신부로서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신앙적이고 사목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있어 그의 천부적인 적응성과 친절함은 심지어 이웃 마을에까지 그를 전문적인 고해 신부요 영적 지도자로 알려지게 했다. 볼티모어와 피츠버그에서 실로스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자비로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줄 수 있었다. 그의 고백성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흑인들과 백인들의 고해를 들었습니다."

구속주회 소속 Redemptorist Order

www.cssrkr.com (한글)
www.seelos.org (영문)



성마리아 성당 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실로스 신부 복자 선언식

Beatification Ceremony in
St. Peter's Square April 9, 2000



신자들은 실로스 신부를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특히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친절한 선교사로서 기억한다. 따라서 실로스가 세상을 떠난 후 피츠버그에서 그에게 전구한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구속주의의 영성에 충실했던 실로스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실천했으며, 성서에 바탕을 둔 설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달되었다. 지치지 않는 그의 사목적 열정은 본당 내 성인 공동체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했다.

1854년 피츠버그에서 많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로 옮겨왔고, 1857년에는 Cumberland, 1862년에는 Annapolis 등에서 본당 사목에 열중했다. 또 동시에 Cumberland와 Annapolis에서 학생 담당으로서 미래의 구속주의 회원들을 위한 양성에 봉사했다. 실로스는 이곳에서도 친절하고 행복한 사목자로서 기억되었으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을 신학도로서 양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최성정신과 신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신자들을 영적인 복자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도적 열정을 심어주자 노력했다.

1860년, 피츠버그의 주교인 Michael O'Connor 주교가 교구장직을 떠날 때, 미카엘 주교는 실로스 신부를 그의 후임자로 추천했으나, 실로스 신부는 교황 바오로 9세에게 그러한 책임을 맡기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편지했고, "이러한 불행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다른 사제가 피츠버그의 교구장으로 임명되었을때, 그는 필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자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군복무의 의무를 져야 했다. 실로스는 구속주의의 장상으로서 워싱턴으로 가 링컨 대통령을 방문했고, 구속주의 신학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켜줄 것을 청원했다. 실로스에 의하면 이대 링컨은 그러한 청원은 지극히 수용할 만한 청원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자신의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다 한다. 그리고 사실 모든 구속주의의 신학생들은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실로스는 신학생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신중치 못하다고 말했던 회원에 의해 학생 담당직을 떠나, 1863년부터 1866년까지 순회선교사로서 일리노이스, 미시간, 미주리,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위스콘신을 돌아 다니며 영어와 독일어로 설교한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간에서의 짧은 사목활동 후 1866년 루이지애나의 뉴 오를레앙에 있는 구속주의 공동체로 발령 받는다. 그곳에서 역시 성모승천 본당의 사목자로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목자로서 알려졌고,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목자로 알려진다. 다른 본당에서와 같이 그곳에서도 실로스 신부의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있어 가장 힘있는 기도라고 알려져 된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뉴 오를레앙에서의 사목은 짧았다. 황열병 희생자들을 방문하고 소진해 있던 그 역시 그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고, 몇 주간의 인내로운 투병생활 후 1867년 10월 4일 48년 9개월의 생애를 접고 영원한 생명을 맞이한다.

실로스 신부의 거룩함을 체현했던 많은 신자들은 성모승천 성당에 모여 들었고, 모두들 실로스 신부의 유골을 만져보고자 했다. 그리고 실로스 신부는 성모승천 성당에 안치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는 2000년 대회년 4월 9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실로스 신부를 복자로 선언한다.

복자 프란치스 하비에르 실로스
지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